

‘무연고 사망’ 광주·전남 3년새 90명

해마다 증가 추세...‘고독사’ 심각한 사회적 문제 대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 국가차원 대응책 모색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나홀로 쓸쓸히 숨을 거두는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고독사 비율도 늘고 있는 만큼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1~2013 광주·전남지역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9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5명 ▲2012년 26명 ▲지난해 39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고독사 증가 추세는 전남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남지역 고독사는 ▲2011년 20명 ▲2012년 23명 ▲2013년 25명 등이다.

3년간 무연고 사망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75.4%, 여자 15.7%이었다. 특히 백골로 발견되거나 발견 당시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8.85%에 달했다.

이는 해마다 30명 가량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독사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병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련 대책 또한 독거노인 중심이다. 청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는 정부 내에서 전담하는 부서도 없고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2010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47.7%, 60세 이하는 48.6%로 청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을 무연고 사망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자 살다 숨지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와 자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친구 만들기 사업은 가족·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노인을 특성별로 분류, 심리치료나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44개 시·군에 함께 모여 식사·취침할 수 있는 ‘공동생활 홈’ 26개 등을 설치해 농

촌에 혼자 남은 노인들이 서로 모여 돕고 보살피는 환경을 갖춰줄 계획이다.

광주지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홀로 사는 노인과 같이 모든 독거 세대를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면서 “실업으로 인한 독거인은 실업 급여를 담당할 노동청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독거인도 성별 또는 나이별 특성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선진 복지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말 기준, 전남지역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11만4649명(남자 2만4627명·여자 9만22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36만6524명의 31.2%에 이른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나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이른바 ‘고독사’(孤獨死)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금호 1동 주민센터

‘사랑의 쌀 뒤주’

1만6000여명에

사랑의 온정 베풀어

“사랑의 쌀 뒤주로 사랑 나눕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1동 주민센터 환관엔 독특한 모양의 쌀 뒤주가 설치돼 있다.

쌀 뒤주엔 네모난 모양에 곱풍스런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겉면엔 ‘주민들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도, 채울 수도 있어요’라고 적힌 풋말이 붙어 있다.

이 쌀 뒤주는 지난 2006년 금호1동 주민센터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쌀 뒤주’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사랑의 쌀 뒤주에 담긴 쌀을 가져갈 수 있다.

또 불우한 이웃의 자존심을 배려해 남몰래 도와주기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와서 쌀을 채워놓을 수 있다.

지난 8년여 간 사랑의 뒤주에 사랑을 담은 주민 수만도 대략 200명. 한 가마니당 20kg 기준 3000포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1억2000만 원이다.

수혜자는 1만6000명에 달한다는 게 금호1동 주민센터 측의 설명이다.

특히 명절 때 쌀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 만나 안부를 묻는 등 이색 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금호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쌀 뒤주에 사랑을 채우고 사랑을 퍼가는 사랑 나눔을 통해 이웃간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돼 가는 것 같다. 나는 동네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뒤주를 통해 이웃 사랑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지역 주민·직장인 대상 수화 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13일까지 북구 동림동 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강당에서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수화 첫걸음 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대상자 수는 수화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직장인과 학생 등 40명이다.

교육시간은 평일만 기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이며,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이다.

교육비는 4만 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062-513-0977.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정부 의지 부족... 위기 가정 긴급복지지원 저조

작년 971억 예산 집행률 55% 그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의 ‘2011~2013년 긴급복

지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신청해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는 평균 77%였고, 이 가운데 실제 긴급지원을 받은 비율(집행률)은 64%에 그쳤다. 특히 2013년 이 사업에는 본 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더해 총 9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 집행률은 55.2%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예산이 충분함에도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복지당국이 과연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복지부는 하루속히 사업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직접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